

Breathing Ruins : Still Wrestling	
참여 작가	이동혁 (Donghyuk Lee), 우수빈 (Subin Woo)
전시 기간	2026 년 8 월 27 일 – 2026 년 10 월 2 일 (오프닝 리셉션 : 8 월 27 일)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핼 (FIM)

전시 내용

핼은 2026 년 8 월 27 일부터 10 월 2 일까지 2 인전 《Breathing Ruins: Still Wrestling》을 선보입니다. 국내 작가 이동혁(b.1985)과 우수빈(b.1999)이 참여하며, 회화와 조각, 설치 작품 20 여 점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폐허를 지나온 이후의 풍경으로 다루는 대신 지금도 질문과 감정이 살아 움직이는 장소이자 개념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술을 통해 무엇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전시 서문

폐허는 무엇이 남겨진 자리인가. 한때 존재했던 것이 사라지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질서마저 무너진 뒤에 남은 잔해인가. 그렇다면 폐허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끝난 사건의 흔적을 더듬는 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폐허는 언제나 과거형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무너진 것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폐허는 어쩌면 사라진 것의 자리가 아니라 사라진 것과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 더 가깝다.

이동혁과 우수빈의 작업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두 작가에게 폐허는 도달해야 할 풍경이나 재현해야 할 이미지가 아닌, 무언가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조건이다. 그곳에는 이미 지나가버린 사건과 사라진 존재가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아 있다.

이동혁의 회화에는 오래 머무르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대상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시선이라기보다는 대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도 끝내 그

결을 떠나지 않는 태도이다. 작가는 폐교회를 찾아가 한때 신앙과 신념이 머물렀던 장소의 흔적과 물성을 화면으로 옮겨왔는데, 거기서 마주한 것은 신념이 사라진 뒤에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다. 이후 이동혁의 화면은 그 흔적을 지나치지 않고 오래 옆에 두고 계속해서 다시 바라보는 쪽으로 움직여왔다.

야곱 시리즈는 이러한 태도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원형적인 도상은 신앙의 서사를 설명하는 이미지에서 그치지 않고, 무언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맞붙어 있는 몸의 형상으로 다시 호출된다. 이때 씨름은 승패로 귀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대상과의 관계를 끝내 중단하지 않는 몸짓이다. 야곱을 반복해서 그리는 일은 그렇게 믿음과 의심, 이해와 불가능성 사이에 놓인 관계를 다시 화면 위에 불러오는 회화적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그의 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그려진 것을 다시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물으며, 끝내 완결되지 않는 질문 안에 머무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빈의 작업 역시 사라진 것들의 곁에서 시작하지만, 그가 붙잡는 것은 조금 다르다. 그의 작업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죽은 동물의 형상과 파편, 사건이 지나간 뒤의 풍경은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가는 그 죽음을 애도하거나 아름답게 복원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바라보며 느끼는 불편함과 욕망,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묻는다. 한때 보여주지 않고 감추려 했던 욕망을 이제는 받아들이려는 태도는 그의 최근 작업이 어떠한 감정을 해소하는 대신 표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수빈의 '부끄러움'은 작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동시에 계속하게 만드는 감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삶과 죽음을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지나치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경계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는 태도는 결국 감정을 제거하는 대신 그것을 작업 안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쉽게 하나의 의미나 감정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조각은 파편, 혹은 작가가 의도한 대로 완성되지 않은 채 살아 있지도 죽어 있지도 않은 무엇인가로 남는다.

이동혁의 회화와 우수빈의 조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끝난 것의 곁에 머무르는 법을 보여준다. 한 사람은 질문을 통해 믿음과 형상을 붙들고, 다른 한 사람은 부끄러움과 분노, 욕망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대상을 붙든다. 그들에게 작업은 폐허를 극복하는 과정도, 상실을 온전히 치유하는 과정도 아니다. 오히려 사라진 것과 아직 남아 있는 것, 말해진 것과 말하지 못한 것, 알고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사이의 틈을 닫지 않는 일에 가깝다.

따라서 이 전시에서 폐허는 하나의 풍경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동사이다. 폐허는 무너진 뒤 멈춰 있는 상태 대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남겨진 것들이 다시 누군가의 시선과 손을 요구하는 상태이다. 이동혁의 회화에서 형상은 그려진 뒤에도 또 다른 질문의 씨앗이 되고 우수빈의 조각에서 파편은 서로 기대고 버티며 하나의 관계를 이룬다. 둘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완전히 붙잡는 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사리 그것을 향해 뻗은 손을 거두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폐허 이후의 작업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미 지나간 것을 되돌리는 대신, 지나갔다고 믿었던 것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 끝내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대상을 곁에 두고 다시 바라보는 것. 사라진 것의 자리에서조차 무언가가 아직 살아 있음을 감각하는 것.

폐허는 그렇게 끝난 뒤에 남겨진 장소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의 이름이 된다. 그리고 두 작가는 그 관계가 끝날 때까지, 혹은 끝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때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안에서 계속 씨름한다.

작가 소개

이동혁 (b.1985)은 회화를 통해 신념과 기억, 이미지에 내재한 질문들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의 답에 이르기보다 질문이 다시 질문을 낳는 과정을 탐구한다. 그의 회화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결론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대상과 오래 관계 맺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후 동대학원 회화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기체 (2024), 에이라운지 (2022, 2020)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디스위켄드룸, 프라이머리 프랙티스, 하이트컬렉션 (2025), 이아 (2024)에서 열린 단체전 등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2026)에 참여하고 있다.

우수빈 (b.1999)은 조각과 설치 작업을 통해 삶과 죽음, 욕망과 감정을 물질의 형태로 엮어내며, 숨겨온 감정과 존재의 흔적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과정을 이어간다. 그의 작업은 감정의 재현을 넘어 여러 존재와 감정이 기대어 머물 수 있는 관계와 장소를 만들어낸다. 작가는 서울대학교 조소과 학사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소현문 (2026)과 안팎 (2023)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아트스페이스 틸, 소현문 (2025), 우석갤러리 (2024)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5 천만아트포영 최고상인 천(天)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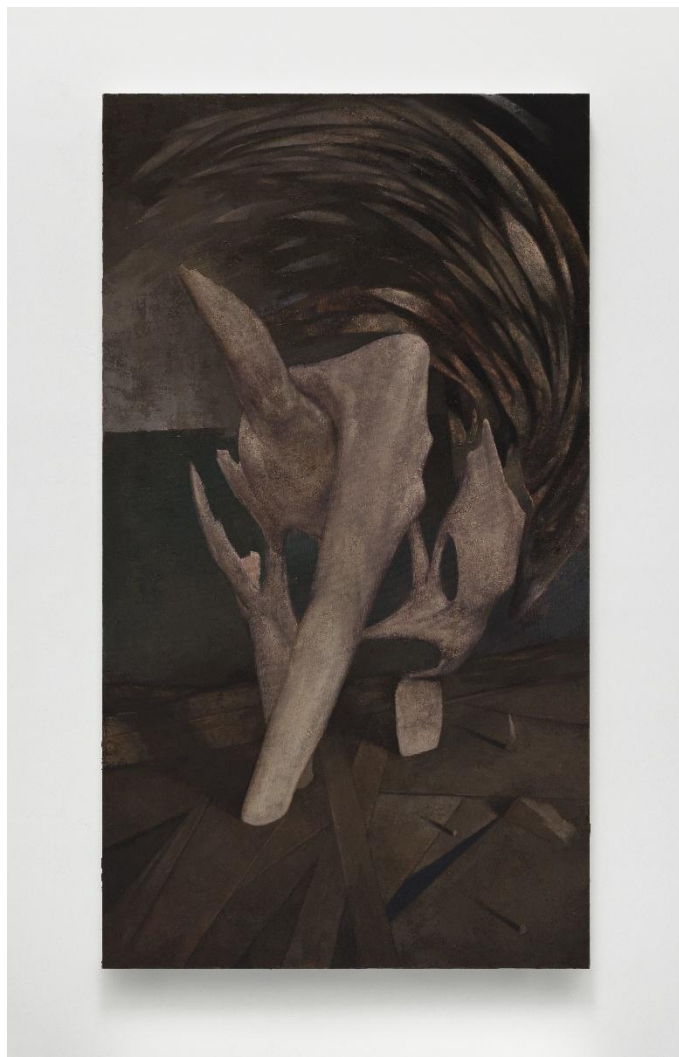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대표작 이미지



이동혁, *아름_3*, 2026, oil on canvas, 100 x 180 cm

이미지제공 **FIM**



이동혁, *야곱_1*, 2026, oil on canvas, 180 x 100 cm

이미지제공 **FIM**



우수빈, *당신의 첫번째 말*, 2024, Clay, plaster bandage, and dry media on a steel armature, 70 x 193 x 157 cm
이미지제공 FIM



우수빈, *Orange Stems of Winter Jungle*, 2023, Mixed media on plaster panel, 35 x 45 cm
 이미지제공 **FIM**

전시 전경 이미지



